

1950년대 잡지 『희망』에 나타난 ‘개인’ 표상

김연숙*

1. 들어가며
2. 『희망』의 경제담론과 부자(富者) 서사
 - 2-1. 재건과 부흥의 경제담론
 - 2-2. ‘부자’ 성공담의 약화와 근대적 개인 담론
3. 『희망』이 호명하는 ‘개인’
 - 3-1. 직장인으로서의 성공과 처세
 - 3-2. 장기근속(長期勤緘)의 서사와 ‘노동하는 인간’
4. 나가며

국문요약

이 글은 대중잡지 『희망』에 나타난 인물 기사, 인터뷰, 칼럼, 처세술 기사를 대상으로 1950년대 개인 서사를 분석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 이를 통해 당대의 대중 서사와 국가 서사가 결합되는 지점의 구체적인 형상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기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인물 이야기에 서 일반적인 성공담/ 고난 극복담의 비중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다. 둘째, 새롭게 강조되고, 양적으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 서사는 직장인 담론이었다. 셋째, 직장인 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5분간 인터뷰』라는 기획연재 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지만, 그 대다수는 서민층의 직업/노동이었고 특히 천대받는 직업/노동이라 할 만한 직종까지 포함되어 있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직업윤리/노동윤리를 강조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가치는 인내·성실·헌신·천직·사명감 등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동 그 자체에 대한 긍정이 부각되었다. 이런 태도는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체념과 절제를 내면화하며, 서구의 '소명적 직업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이 잡지 『희망』이 1950년대 개인을 호명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다양한 직업인의 서사 속에서 비주체적이고 비자발적인 '노동하는 인간'의 원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후 근대화 과정과 관련해서 대중매체에서 직업인/노동자를 배치하고, 형상화하는 방식의 기원을 고찰했다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들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은 자본주의/산업사회의 경제발전에 친화적인 특정 가치인 검약, 성실, 인내/극기, 헌신, 사명감 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향후 이들은 60~70년대의 '산업역군'으로 표상화된다.

(주제어: 『희망』, 근대적 개인, 직장인, 직업윤리, 노동윤리, 노동하는 인간, 규율되는 주체, 관리되는 주체)

1. 들어가며

『희망』(〈희망사〉, 발행인 김종완)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7월 부산에서 창간, 1962년 3월까지 총 88호가 발간되었다. 이후 〈희망사〉는 1955년 12월 27일에 『주간희망』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1958년 9월 19일까지 총 135호의 주간지도 펴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문 저널리즘을 능가하는 잡지의 전성시대다.¹⁾ 한국전

쟁 중에도 피난지 대구·부산을 중심으로 잡지출판이 활발했으며, 휴전 이후인 1950년대 후반에는 잡지 연쇄전략에 따라 잡지의 분업화·전문화가 촉진된다. 잡지 발행이 활발해지면서 휴전 이후 판매부수가 4,000~5,000부에서 1만부 정도인 잡지가 수십 종이 출현했고, 5만~6만부를 발행하는 잡지도 여럿 나타났다.²⁾ 특히 대중잡지는 상업성을 압도적으로 드러내며, 문예지의 제한된 독자층과 달리 지역·연령·직업을 초월한 광범한 독자층을 포섭하면서 잡지시장을 주도하게 된다.³⁾

이런 가운데 등장한 『희망』은 '대중종합잡지'를 표방하고 나서며⁴⁾ 대중오락잡지의 오락성과 정론종합지의 시사성을 두루 갖추고자 했다.⁵⁾ 이때 시사성이란 한국 전쟁기 중에는 선전지의 역할을, 전후 현실에서는 사회 재건을 위한 계몽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전쟁기에 『희망』은 수많은 화보와 특집 기사를 통해 전선의 치열함을 전달하는 한편으로 후방의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경계하자는 주장을 계속했다.⁶⁾ 전쟁 중 문화정책 역할(오락지의 성격)을 하면서도, 잡지 발행을

- 1)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 2010, 400-417쪽.
- 2)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266-287쪽.
- 3)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 2010, 404쪽.
- 4) 기존 연구에 따르면 『희망』은 대중종합지로 분류되며(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훈파의 "명랑소설" 연구』, 『어문론총』 66권,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2015, 295-297; 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제13호, 2016, 161쪽) 다소 예외적으로 '여성관련 잡지'라 명명된 경우(신혜수, 『1950년대 여성관련 잡지 목록』, 『근대서지』 제7호, 2013, 678-682쪽)도 있지만, 이때 '여성관련'이란 잡지가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일 뿐, 대중종합지 특징을 설명하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 5) 실제로 『희망』 잡지가 발행되던 동시대에서도 이런 점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으며(염상섭, 『양득(兩得)의 특색이 있다』, 『희망』 1953년 7월호, 희망사, 17쪽) 최근 연구자들은 이를 『희망』의 특징적인 서사전략으로 지적하고 있다(전지니, 『『희망』 소재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2016, 105-106쪽; 조운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47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21쪽).

통해 사상전(思想戰)의 선봉에 서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에 충실했던 것이다.

전후 『희망』의 중심과제는 ‘반공과 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반공’과 ‘재건’은 표면상 구분되는 것일 뿐 이들은 전후 국가(사회) 재건의 두 축으로 설정,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무력통일/북진통일로 수렴되는 반공담론⁶⁾이나, 전후 복구를 위한 사회재건과 부흥담론은 둘 다 남한사회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대중적 ‘희망’을 창출을 위해 제시된 사회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따라서 반공과 재건은 절대선(善)이며, 그를 방해하는 대상은 모두 제거해야 하는 악으로 간주된다. 사실상 이와 같은 이분법적 인식은 『희망』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겪으면서 저절로 체득된 사회 공동체의 생존논리에 가깝다. 『희망』은 이런 무의식적인 내재논리를 한층 강화해서, 잡지를 통해 대중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가는 계도 역할을 하고자 했다. 반공은 문자 그대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이고, 재건은 우리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주장이다. 전자는 상대를 향한 것이고 후자는 자신을 향한 논리다. 그러나 상대를 이기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방식으로 반공과 재건을 결합시키는 순간, 그것은 더욱 강력한 현실 규범이 될 수 있었다. 가시적인 적(敵)을 상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행동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계도성 혹은 방향성의 강조는 초창기 『희망』에서부터, 월간지·주간지를 가리지 않

6) 전지니, 『『희망』 소재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2016, 110쪽.

7) 김종완, 『희망지 창간 1주년을 계하여』, 『희망』, 1952.7, 12쪽 참조.

8) 『희망』에 나타난 반공담론의 표상에 관해서는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 청년 표상 연구』(전지니, 『어문론총』 68권, 2016, 369-400쪽)를 참조.

고 두루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1950년대의 개인표상 또한 이와 같은 『희망』의 계도성/방향성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글은 잡지 『희망』에서 어떻게 대중잡지의 기획을 통해 개인을 국가주도의 경제 재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잡지 『희망』이 내세우는 개인의 표상이자, 1950년대 개인 주체의 모델이 형성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편 『희망』에 대한 기존 연구는 『희망』에 대해 서지학적 측면에서 잡지 성격을 규정하거나,⁹⁾ 전후 민주주의 사회 형성과 관련된 인권의 차원에서 잡지의 역할을 규명하거나,¹⁰⁾ 문예면을 중심으로 한 주제 연구가¹¹⁾ 이루어져왔다. 주제적 측면에서도 그다지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1950년대 여타 잡지(『신태양』, 『명랑』, 『아리랑』, 『여원』 등)에 비한다면 『희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창기라 할 것이다. 이 글은 기존 연구가 밝혀놓은 성과에 힘입어, 『희망』에 대한 주제적인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과 동시에 『희망』이 보여주는 1950년대 시대적 담론의 의미까지도 밝혀보고자 한다.

이 글의 연구대상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월간 『희망』 85호(총 88호)와 『주간희망』 119호(총 135호)를 연구대상으로

9) 신혜수, 「1950년대 여성관련 잡지 목록」, 『근대서지』 제7호, 2013, 654-682쪽;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제13호, 2016, 158-189쪽.

10) 조운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47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15-136쪽.

11)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 연구」, 『어문논총』 66권, 2015, 295-321쪽; 전지니, 「『희망』 소재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2016, 103-130쪽;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어문논총』 68권, 2016, 369-400쪽.

삼고(1951년~1962년), 경제담론의 측면에서 개인이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처럼 『희망』의 시사담론은 반공과 재건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중 개인에 대한 서사는 재건/경제부흥 측면에서 좀 더 의미있게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적 개인은 이성에 기초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가진 자유롭고 주체적인 개인을 의미한다. 경제적 인간으로서의 자기 이해 및 자아 정립과정은 그러한 개인 형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때 ‘경제적’이란 의미는 생존본능 혹은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탐욕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적 인간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으로서 상거래(商去來)를 하며, 자율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영위할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이익 추구하고 그 축적을 도모한다. 따라서 경제담론에 나타난 개인표상을 분석하는 것은 근대적 개인 주체의 모습을 고찰하는 유의미한 방식이 될 것이다.

물론 『희망』의 개인 서사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인간 유형, 근대적 개인 주체로서의 ‘경제적’ 의미를 찾기란 아마도 난감한 일일 것이다. 『희망』이 주로 발간된 시기는 식민지 경제와 해방 이후의 혼란이 기형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 한국전쟁/전후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이 때문에 개인 생존과 집단공동체의 유지라는 최소한의 요건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제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희망』의 경제 담론에서의 개인표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국가 서사와 어떤 교차점을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희망』의 경제담론과 부자(富者) 서사

2-1. 재건과 부흥의 경제담론

앞서 1950년대 『희망』의 중심과제는 '반공과 재건'이었으며, 이는 전후 국가/사회의 중요한 두 축으로 설정,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공은 가시적으로 상정된 적(敵)이자 국가/사회의 목표이었고, 이를 위한 행동방안이 사회 재건을 위한 부흥담론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경제 담론에서 드러나는 '반공'은 달성해야 할 목표이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오늘의 국민생활의 점진적인 저하(低下)와 악성 '인플레이'의 발호, 문자 그대로 토탄에 신음하는 현재의 비참한 위치의 타개책은 기본산업의 부흥에 있는 것이니 생산의 급속적인 지향이 없이는 오늘의 우리의 경제적 파산은 구할 길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원칙인 것이다. 우리의 목표인 북진통일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경제제건 없이는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니 경제제건은 곧 국력의 충실을 말함이요, 국력의 충실은 곧 전체민중의 생활향상을 지적함일 것이다. (중략)

여든뎬을 맞는 우리의 노대통령은 석탄생산에 300만'톤'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목표량은 우리나라의 산업과 국민생활을 원활히 유지해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난관이나 애로도 타개하면서 이 생산량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군비확장과 생산증가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괴뢰도당의 발악에 대비하며 그들의 야욕을 꺾고 경제전에 있어서의 승리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¹²⁾ (강조-인용자)

위 인용문은 1955년 2월 17일 서울시공관에서 10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장기근무한 모범광부 19명을 표창한 이후, '산업전사'들의 시가행

12) C기자, 『갱저 20년의 영광-석탄산업전사 서울방문수행기』, 『희망』, 1955.5, 희망사, 95-98쪽.

진, 경무대 다과회, 대통령 관저 초청, 석탄공사의 태화관 초대연 등을 따라다닌 기자의 『석탄산업전사 서울방문 수행기』 중 일부분이다. 주된 내용은, 장성·도계·영월·은성·화순탄광에서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과 결투해온” 광부들이 “그윽한 육친의 애정”으로 환대하는 김일환 중장(당시 석탄공사 단장)의 “인간애”에 감응하면서 화기에애한 단합의 일정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광부들의 서울방문 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강조되는 사실은 서울방문 행사보다는 석탄산업의 부흥이다. 자원개발-경제발전의 중요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희망』의 강조점은 “경제전”이라는 표현에서처럼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겨야한다는 승공(勝共)에 놓여있다.

해방 이전부터 천연 자원은 북한 쪽에 더 많이 분포해있었지만, 남북 분단은 자원생산과 수급 또한 단절시켰고, 이후 남한은 자원 생산과 수급불균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만했다. 석탄의 경우, 정부 주도로 탄광복구와 석탄증산에 적극 나선 결과 해방 전 남한 생산량인 144만톤을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지만(1949년-113만톤 생산), 여전히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고 석탄산업의 민영화-국영화를 오락가락하며 경영문제로 생긴 문제가 심화되어갔다. 결국 1954년 12월 2일, 임금체불을 견디다 못한 광부들의 파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됐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12월 7일 유시문(諭示文)을 발표하고,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대통령 특명으로 김일환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육군지원단을 공사에 파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희망』 기사에 나온 광부 표창과 서울방문의 배경인 셈이다. 즉 사상초유의 탄광파업과 석탄생산-공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광부들을 초청해 일종의 유희책을 펴면서 대국민 선전·홍보효과를 노린 행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희망』은 광부들을 초청해서 벌인 갖가지 행사 외에도 석탄공사에 대한 소개와 평판, 이승만대통령의 훈화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방문수행기'와 별도로 석탄공사 단장 김일한 중장의 인터뷰 기사¹³⁾와 사진 화보(기념식·만찬회·선물 증정 장면 등)¹⁴⁾도 게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서술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반공/승공'으로 수렴되고, 국가/사회의 재건과 부흥도 북한과의 경제전(經濟戰)이라는 단일 논리를 구축한다. 따라서 경제재건에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점은 모두 공산당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기묘한 동일시 까지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제일 큰 요망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볼 때에 천인이나 만인이나 이구동성으로 '남북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중략) 독재와 침략을 일삼는 공산당이야말로 이 인류가 사는 동안에는 이 지구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벌칙이 없는 천리야말로 자유를 부르짖고 평화를 희구하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아연할 지경이다. 경제상으로 공산당과 같이 중요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위정자나 유식층이나 지도급이나 공산당과같이 중요하고 금지하고 박멸코자 노력하는 것은 곧 밀수업자이다.¹⁵⁾

1955년 새해를 맞이한 각오를 묻는 기사에서는 "가장 큰 요망은 남북 통일"이며, 따라서 공산당을 가장 용납할 수 없는데, 경제상으로 밀수업자가 공산당이고, "공산당과 같이 중요하고 박멸코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밀수업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새해에 해야 할 시급한 일은 밀수업자를 없애는 일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논리적으로

13) 소천생, 『이례(異例)의 '석공(石公)' 지휘감독관-김일환중장의 편모(片貌)』, 『희망』, 1955.5, 희망사, 96-97쪽.

14) 『탄쟁 속 20년! 산업전사에 바치는 겨레의 꽃다발』, 『희망』, 1955.5, 희망사, 16-17쪽.

15) 원달호, 『새해에 새로 할 일』, 『희망』, 1955.1, 희망사, 123쪽.

따져보자면 비약과 모순이지만, 1950년대의 시대담론은 ‘경제재건/부흥 = 반공/승공’을 아무 문제없이 동일시했고, 『희망』은 그 기초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와 같은 『희망』에 등장하는 경제담론은 내용상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재건) 정책 및 사회제도에 대한 것으로 ‘부흥사업 / 경제재건 정책 / 농촌진흥책 · 농산정책 / 중소기업 부흥, 산업 증진 / 일본인 재산 국가 귀속 / 화폐개혁, 물가정책(인플레) / 주택(재건주택, 후생주택) · 전후 도시복구(서울) / 국산품 장려, 지하경제(밀수출 · 밀수입, 계, 전당포, 위폐, 달러 매매, 암거래) 제도 / 경제원조(외자도입) · 해외시찰’ 등의 주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주간희망』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넓이와 깊이를 지닌 ‘뉴스’의 해부”¹⁶⁾를 지향한다는 ‘해설 저널리즘’을 내세운 만큼 경제란으로 분류될 만한 코너의 기획도 다양하며, 그 기사 양도 엄청나다.¹⁷⁾ 다른 하나의 갈래로는 개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경제담론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개인권장 덕목에 대한 강조(사치 · 허영 경계, 소비합리화, 출세), 직장생활 조언 · 권고(취직, 처세술, 직장 내 인간관계), 개인성공담 등이 등장한다.

이들 경제담론 기사의 폭넓은 주제와 방대한 양의 의미, 특징적 요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나마 『희망』의 경제담론이 개인과 관련지어지는 부분에 주목해보자면, 계몽서사와 발전서사의 내용적 구별이 가능할 것이다. 전자의

16) 『편집자의 편지』, 『주간희망』 14호, 1956.3.26, 희망사, 54쪽.

17) 『주간희망』은 창간호에서부터 『주간시평』 코너를 기획해서 최신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싣고, 『주간일지』 코너에서는 국내/해외의 한 주간 뉴스를 거의 도표화하다시피 해서 보여준다. 또 경제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하게 다루는데, 위의 기획란들 외에도 창간호부터 경제란을 따로 구획해놓고, 『주간경제』, 『경제여화』, ‘물가표’(『서울 소매 물가표』) 등의 기사를 고정연재물로 싣는다.

경우, 전시생활개선, 인플레이션 현상 등과 관련되어서 국민의 도덕심에 호소하며 개인이 노력하지는 것을 강조하거나¹⁸⁾ 개인의 사치·허영 등의 일탈을 경계하고, 소비를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지는 요구 등을 주내용으로 서술한다.¹⁹⁾ 후자의 경우는 대중의 열망을 담아내는 일종의 모델 서사, 즉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서사를 지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2. '부자' 성공담의 약화와 근대적 개인 담론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서사를 지향하는 발전 서사/모델 서사는 일제 강점 시기부터 현재까지도 꾸준히 재생산·유통되어왔다.²⁰⁾ 일제 강점기에 등장했던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성공한 개인, 사업가, 부자(재벌·자본가)에 대한 서사는 1950년대 후반부터 잡지의 영역을 넘어 서서 기업인의 회고담으로 나타난다. 이 기업가 자서전/재계 회고담 류는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중성을 획득하며, 1990년대 이후 소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으며, 현재 통용되는 '자기계발 서사'로 이어지는

18) 『일선기자 자유방담회』(박성환(경향), 변영권(동아), 김동국(합동), 김자환(연합), 조용하(방송국), 장기법(사회), 유호룡(속기)), 『희망』, 희망사, 1952.10.

19) 『생활고와 진통의 번(3)돈을 더 벌 수 있는 비법』, 『희망』, 희망사, 1954.9, 187쪽; 『자유제안-사치와 허영을 박멸하자』, 『희망』, 희망사, 1954.10, 64쪽; 김장길, 『희망제안: 국산품을 애용해야 우리 제품이 발전한다』, 『희망』, 희망사, 1953.2, 29쪽; 희망제안: 박래품과 춤추는 무리들 그래도 입으로는 애국』, 『희망』, 희망사, 1953.2, 29쪽.

20) 이 글에서는 개인담론의 유형에서 발전 서사/모델 서사 중 위인(동서양 고전)서사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물론 특정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동서양 고전 속의 위인들이 거론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위인의 특성상 일정정도 초시간적인 경향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점도 분명히 있다. 이 글에서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희망』의 의미에 좀더 주목하고자 하는 바, 위인 서사보다는 동시대적인 인물 서사/현재적 서사에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계보를 형성했다.²¹⁾ 한편 잡지에서도 해방 이후부터 청소년 교양의 측면에서는 삶의 모델로서의 개인담론이 대폭 늘어났으며,²²⁾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 대중에게는 성공을 향한 욕망을 구조화하는 일련의 개인 성공담 형식의 서사물들이 꾸준히 이어져왔다.²³⁾

부자·자본가·기업가 등의 성공한 개인의 서사는 대체로 ‘현실 → 개인의 노력 → 고난 극복 → 성공’이라는 직선적 발전을 향한 개인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취/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성공과 발전’이라는 욕망의 문법이 창출되고, 개인의 욕망은 공공선으로 환치됨에 따라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성공은 사회발전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개인성공을 추동하려는 사회계몽의 의도와 개인욕망의 지향은 서로 겹쳐지게 된다. 기존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중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점에서 입신출세담·자수성가담이 등장하는 것이다.²⁴⁾

『희망』 잡지 또한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대중성과 공공성의 교차점 위에 놓여 있고, 개인표상에서 ‘고난의 극복’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에서는 부자·자본가·기업가의 서사 분량이 극히 적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여타 개인표상의 공통요소였던 고난 극복의 결과로서의 성공의 비중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한 현상이다. 더욱 흥미롭게도 『희망』의 부자·자본가·기업가의 서사의 빈약함은 당대 사회·경제 현실과는 상반된 사실이라는 점이다.

21) 김혜인, 『자본의 세기, 기업가적 자아와 자서전』, 『사이間SAI』 18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155-159쪽.

22) 김한식, 『『학원』의 인물 이야기와 전후 청소년 교양』, 『겨레어문학』 49권, 겨레어문학회, 2012, 147-172쪽.

23) 김성환, 『1970년대 『선데이 서울』과 대중서사』, 『어문논집』 제64집, 2015, 239-273쪽.

24) 김성환, 『1970년대 『선데이 서울』과 대중서사』, 『어문논집』 제64집, 2015, 239쪽; 김연숙, 『식민지 조선인 자본가의 표상과 민족담론』, 『어문연구』 38권 3호, 2010, 289-299쪽.

기존 논의에 따르자면,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수립되고 농지개혁, 분단국가 형성으로 전통적인 가족·친족 질서가 새롭게 변형되기 시작하던 한국전쟁 직후의 50년대야말로 고도로 도시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오늘날 한국사회의 실질적 기원을 이룬다고 파악한다.²⁵⁾ 특히 이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국민경제가 형성된 시기에 해당하며 오늘날 유력한 재벌의 실질적인 기원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인 삼성, 현대, LG 등의 경우 스스로 그룹 창업 시기를 1950년대 이전(해방 이전)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유력한 기업집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서이다.²⁶⁾ 그들 대부분은 1950년대 적산기업의 불하와 원조자금 등을 배정받으며, 초기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을 급성장시키면서 재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²⁷⁾

이처럼 1950년대 재벌이 성장하던 시기(주로 1953~1961년)가 『희망』 잡지의 주 발행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도 『희망』에서 개인의 측면에서 조망한 재벌서사는 지극히 빈약하다. 『주간희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간희망』은 초창기부터 “신문적인 냄새로 지면을 꾸미려” 한다면서 종합적인 뉴스의 보도를 중요한 편집 방침으로 내세우고, 매주 각 계의 인물들을 두루 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²⁸⁾ 그 때문인지 『주간희망』은 월간지인 『희망』에 비해 인물대상

25) 김동춘, 『근대의 그늘』, 당대, 2000, 48쪽.

26) 홍명수, 「재벌의 의의 및 특성」, 『경쟁법연구』 9, 2003, 162쪽.

27) 홍명수, 「재벌의 의의 및 특성」, 『경쟁법연구』 9, 2003, 163쪽; 이한구, 『한국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1999, 78-79쪽. 덧붙여 홍명수는 공통적으로 이에 비해 과거 농업경제의 지배층이었던 지주계층은 농지분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후퇴하였으며, 이들에 의하여 축적되었던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함께 차단됨으로써 그야말로 '새로운' 재벌이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홍명수, 「재벌의 의의 및 특성」, 『경쟁법연구』 9, 2003, 163-164쪽).

기사, 특히 인터뷰 기사, 인물 화보 등의 종류와 양이 풍성하기 이를 데 없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희망』의 재벌서사는 다른 인물 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주간희망』의 인터뷰의 대표적인 코너인 「희망방담-조경희 대담」의 경우, 1956년 8월 10일(제33호)에 첫 회를 시작, 1957년 12월 6일(제102호)까지 68회를 이어가는데 그 중 사업가(재벌)는 4명(박흥식, 최창학, 이병철, 홍찬) 뿐이다.³⁰⁾ 엄밀히 따지자면 박흥식과 최창학은 해방 이전부터 특히 1930년대 조선부자의 대표적 상징으로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또 홍찬은 『희망』과의 인터뷰 당시 수도영화사·평화신문사의 사장으로 앞으로 민간 방송국과 영화촬영소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등장했으니 이 세 사람은 50년대 부자/사업가/재벌의 범주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68명 중 해방 이후 사업가, 50년대 재벌이라 할 사람은 이병철뿐인 셈이다. 더구나 『주간희망』은 “실업가 이병철”을 조망하면서 고난 극복의 서사라든가 성공담과는 거리가 먼 서술방식을 선택한다. 개인 약력과 사업 내력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별다른 강조점 없이 마치 인물을 스케치하듯 가벼운 인상비평을 행할 따름이다. 대담에 응하는 이병철도 마찬가지다.

28) 「편집자의 편지」, 『주간희망』 제5호, 희망사, 1956.1.23, 3쪽.

29) 「금주의 인물」, 「희망인터뷰」, 「전화인터뷰」, 「5분간 인터뷰」, 「희망방담-조경희대담」, 「한국의 연륜」, 「한국의 일군 30대」, 「뉴 웨이스 의정 일년생」, 「아름다운 초상」, 「아내의 초상」 등 개인을 다루는 인터뷰 기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 기사들은 연재물로 고정기획되어 있어 그 분량도 상당히 많다.

30) 「희망방담」은 대담 2회 차에 이르러 조경희로 대담진행자를 고정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대담 대상자에 대한 독자추천을 받으니 “정계, 학계, 사회지명(知名)인사 등”에서 추천해달라고 말한다(「문는 분엔 조경희씨」, 『주간희망』 제34호, 1956.8.17, 3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68회에 이르기까지 대담 대상자는 대부분이 정치인과 행정관료이며 애초 의도했던 다양한 인물의 면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신용있게만 만들어낸다면 그 사업은 발전이 되는 거야요. 우리 제일모직에서 나오는 것이 '골덴텍스'인데 지금 어떤 외국산 양복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염가로 좀더 좋은 품질의 것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³¹⁾

자신이 "신흥재벌"이 된 비결은 별다른 게 없으며 사업 자금도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신용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²⁾ 이때 '신용'이 개인적인 덕목이나 정신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이나 제품과 관련된 생산자-소비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짐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편 이 인터뷰 기사는 당시 삼성그룹이 1955년에서 1959년 동안 113억환에 달하는 은행융자를 받으면서 50년대 재벌 1위에 올라섰던³³⁾ 기간인 1957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다. 하지만 현실 상황을 은폐-왜곡하는 서술도 문제적이지만 이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극복과 성공담의 요소가 『희망방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견상으로는 재벌서사/기업가의 성공서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거나 성공 욕망의 발현을 추동하는 개인 주체의 성격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1950년대가 해방 이후의 재벌이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한국 전쟁 중 피난 수도 부산에서 창간된 『희망』은 부를 축적하고, 자산을 운영하는 재벌과는 거리가 먼 일반 대중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해방 이후의 혼란과 과도적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전쟁까지 거치면서,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만이 목적인

31) 『희망방담-조경희대담』 34회, 『주간희망』 제67호, 희망사, 1957.4.5, 19쪽.

32) 『희망방담-조경희대담』 34회, 『주간희망』 제67호, 희망사, 1957.4.5, 19-21쪽.

33) 이한구, 『한국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1999, 78-79쪽.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제’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치부(致富)/성공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황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을 것이다.

월간 『희망』 1955년 3월호에는 당시 사회부장관이었던 박술음(朴述音)이 자신의 큰 딸의 동창이자 결혼 주례를 서준 35세 젊은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고 있다. 이 편지는 제자인 ‘Y여사’가 박술음 사회부장관에게 크리스마스카드 겸 취직 부탁 편지를 보낸 데 대한 답장이다.

너 같은 불행한 여성이 이 땅에도 30만이니 전 세계 여성해방도 급하려니와 30만 여성의 한숨이 더 구슬프고, 세계평화도 중하려니와 이 땅의 평화가 더욱 기다려지며, 자손만대의 복지도 추진해야 하려니와 저같은 한국 미망인 1대의 안전이 더 염려된다.(중략) 너는 교양있는 집에서 자라나 속은 비었는데 예절만이 남은 것같이 내게 생각되어 걱정이다. (중략)

네 처지가 네 허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폭풍우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니 네 소원을 널리 호소하고 정부의 구호 혜택을 입도록 너 자신 먼저 나서라. 울지 않는 아기에게까지 젖을 줄 만큼 아직 세상 모든 어머니가 현명하지는 못하다.³⁴⁾

‘Y여사’는 친정이 이북인데, 한국전쟁을 겪으며 시아버지가 납치되고, 남편은 수도고지에서 전사해버려, 세 남매를 혼자 키워야 하는 신세다. 박술음은 ‘Y여사’의 처지를 “30만 여성”의 불행, 즉 당대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파악한다. ‘Y여사’는 현직 장관에게 스스럼없이 취직을 부탁할 만한 처지이며, 그 이전에도 “C교수” 등과 고민을 나누는 등 인적 교류가 폭넓은 편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상류층 여성조차도 전쟁을 겪으며,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그런 그녀를 ‘독화살을 맞은 비둘기’, “생사를 뒤웅박 뜨고 가라앉음에 맡기고 깊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해

34) 박술음,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 않으리!-전쟁(戰災) 미망인에게 보내는 서한』, 『희망』, 희망사, 1955.3, 53쪽.

녀”³⁵⁾로 비유하는 것을 볼 때, 성공보다는 생존이 절대적인 당대 정황을 충분히 짐작해볼만 하다.

3. 『희망』이 호명하는 ‘개인’

3-1. 직장인으로서의 성공과 처세

월간 『희망』 1957년 2월호는 중소기업가들의 성공담에서 전형적인 고난 극복 서사를 등장시킨다. 그들은 주로 자신들의 과거경험담을 들려주는데,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포마드’를 주력상품으로 내세우는 화장품회사 사장이 된 이야기, 행상을 하다가 마침내 극장 경영주가 된 이야기, 공장 견습공을 시작으로 하여 유리공업소 소장이 된 이야기들로부터 인내와 근면, 꾸준한 노력의 초지일관, 끈기있는 신념을 강조한다.³⁶⁾ 그리고 이들 중소기업가는 “민족의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생활필수품을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 내 놓으려고 노력하는”³⁷⁾ 일종의 민족적 영웅 이미지까지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런 성공담은 전체 『희망』 서사에서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다.

『희망』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양적으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표상은 직장인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장인은 규칙적인 급료(특히 월급)를 받는 임금노동자를 가리키며, 이들에 대한 서사담론은 1920년대 초중반 잡지에서부터 나타난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시사 종합잡지 『개

35) 박술음,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 않으리」-전재(戰災) 미망인에게 보내는 서한, 『희망』, 희망사, 1955.3, 53-54쪽.

36) 「중소기업가 성공 뒤의 비화」, 『희망』, 희망사, 1957.2, 96-107쪽.

37) 「중소기업가 성공 뒤의 비화」, 『희망』, 희망사, 1957.2, 96쪽.

백』(1920~1926)이나 여성잡지 『신여성』(1923~1934)의 전반적인 키워드는 ‘의뢰(依賴)’와 ‘자립(독립)’이었다. 타 민족(특히 일본)에 대한 의뢰, 가진 자에 대한 의뢰, 구습(舊習)에 대한 의뢰, 부모에 대한 의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뢰 등 온갖 종류의 ‘의뢰(심)’는 새로운 각성과 ‘자립’의 의지로써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악덕 중의 하나였다.³⁸⁾ 따라서 ‘경제적 자립’은 시대적 과제였으며, 개인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만 사람구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물론 지식인층, 중류층 이상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적당한 직업을 구해 자기의 의식주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당위적 목소리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해방 이전의 서사가 직업 즉 개인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해방 이후 『희망』의 중심점은 직장/일터를 전제로 한 개인의 직장생활, 노동상황이다. 예를 들어 『희망』 1956년 10월호는 20대의 이성 및 결혼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부부 직장 진출”에 대한 질문이다.³⁹⁾ 그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찬성 5(조건부 찬성 1 포함), 반대 4(조건부 반대 1 포함)이다. 조건부 찬성이란 ‘같이 벌어야 하지만, 첫 아이가 있을 때까지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이고, 조건부 반대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피하고 싶다’라고 밝힌 경우이다. 설문대상자가 비교적 적은 인원이지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질문에서 ‘직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의 직장생활을 찬성 이유

38)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266-271쪽.

39) 『20대의 이성관 및 결혼관』, 『희망』, 희망사, 1956.10, 120-122쪽. 그 외 좋아하는 이성 타입, 이성 간의 우정이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혼 전 성관계, 중매결혼과 연애결혼의 선호도, 신혼여행지, 희망 자녀 수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을 싣고 있다. 전체 응답자는 총 9명으로 남녀 성별 구별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나, 그중 최소 2명은 여성이라고 판단된다(여배우와 숙대 영문과 학생이라고 신원을 밝혔기 때문에).

도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든가, 권리보장 등 보다는 현실적인(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⁴⁰⁾ 이처럼 '직장'에 대한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화됨에 따라 『희망』에서는 다양한 직장인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희망』에서는 맞벌이 부부문제, 취업 성공 여부, 출세 비결, 남편의 출세를 위한 아내 내조, 직장 내 처세술, 직업 소개, 직업학교 및 학원 탐방 등 다양한 기사들이 등장한다. 특히 처세술 즉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대처법과 노동 상황에서 가져야 할 태도 등에 대해서는 외국 기사 번역물을 비롯해서 독자 상담, 논설, 특강, 문학작품 등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외국 상황이긴 하지만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상황이니, 이 기사를 숙지해서 당신의 상사가 어떤 질과 급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를 절대적인 숭배 위치에 두고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적인 처세술이라고 강조한다.⁴¹⁾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나”를 고민하는 직장인에게, 『희망』은 낙심 말고 열심히 책을 읽으며 노력하면서, 출세의 길을 잡으라는 해답을 내놓기도 한다.⁴²⁾

또 남편을 내조하는 여성의 실천 지침, ‘숫백이(숫보기)’ 사원이 직장 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실천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여성에게는 25개의 질문 항목을 제시하고, 그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노

40) 예를 들어 육군본부 공보실에 근무하는 유인목은 “다 같이 벌어야 해요. 될 수만 있으면 여자 쪽이 안정된 직장에서 남자를 좀 도와주었으면…… 현재 군인의 신분이니 까요.”라고 대답한다(『20대의 이성관 및 결혼관』, 『희망』, 희망사, 1956.10, 121쪽).

41)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직장 상사를 “지배적, 기만적, 교장선생, 행정관, 전문가, 사교적, 근심, 선배”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런 상사 아래에 있는 부하인 ‘나=개인’이 “회피할 점”과 “실행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레이 쏘세후, 『최신 처세법_상사의 타입과 다루는 비법』, 『희망』, 희망사, 1955.1, 104쪽).

42) 천일방, 『애독자사교실-희망백과사전』, 『희망』, 희망사, 1955.1, 171쪽.

력하라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남편은 출세하고 당신은 현처가 되고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제시된 항목들은 주로 남편의 출퇴근을 보조해주는 등의 내조,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집안일과 육아 등을 잘 해내는 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직장에서 성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설 속 여주인공 ‘은미’는, 남편이 댄스홀을 다니느라 횡령한 공금 5만원이 필요해서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를 팔러 왔다는 여인을 보면서 세상이 더럽고 험하다는 한탄을 하기도 한다.⁴⁴⁾ 집안의 생계유지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내의 남편의 직장생활을 위해 결혼반지까지 저당 잡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초보 직장인에게 ‘문병전술(병문안), 기부(壽附)전술, 음주전술, 만인공통의 득점비법(상관에게 잘 보이는 것)’ 등으로 명명한 각종 처세술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실천해볼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⁴⁵⁾

이상 출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는 오늘의 실업자 또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보다 확고하고 충족된 출세를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을 이렇게 ‘유-모러스’한 견지에서 보고 적었다.(중략)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든 그 ‘유-모러스’한 출세비결이 절대로 가공의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 혹은 오늘 직장에서 혹은 또 판 곳에서 이미 자기 스스로가 취하였던 그것이며 혹은 잠재의식으로 자기가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란 것을 깨다를 것이다. 그러니 또한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자기의 의도가 비굴한 것이며 타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비장하게 규정지를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⁴⁶⁾

43) 양일민 「현처학 25강-당신은 남편을 출세시킬 수 있을까?」, 『희망』, 희망사, 1955.2, 78-81쪽.

44) 조흔파, 「여인처세학」, 『희망』, 희망사, 1955.5, 23-26쪽.

45) 이소로, 「신판 출세비법, 불운에 우는 숫백이 일꾼들이 알아들 이야기」, 『희망』, 희망사, 1955.2, 187-191쪽.

46) 이소로, 「신판 출세비법, 불운에 우는 숫백이 일꾼들이 알아들 이야기」, 『희망』, 희망사, 1955.2, 187-191쪽.

직장 상사가 아프면 '센스있는' 선물을 챙겨서 문병가는 '문병전술', 상사의 관혼상제는 물론, 돌날, 생일날, 백일날까지 챙겨서 "정이 척척 붙는 아침의 말과 함께" "월급의 몇 배가 되는 값진 물건"까지도 바치라는 '기부전술' 등의 서술을 보면 "유모러스"한 출세비결이라는 표현이 걸맞다. 그러나 이것이 가공의 것이 아니며, 이 글의 근본태도는 출세비결 - 직장 내 처세술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르면, '직장'의 중요성과 직장 내 성공을 원하는 당대의 간절한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은 이들 직장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었던 바, 1955년부터 월간 『희망』에서는 직장인 독자의 투고작을 게재하는 「직장 문예란」을 기획, 매 호마다 시·수필·콩트를 서너 편씩 게재하기도 했다. 1955년 7월호에서 「직장 문예란」을 신설했다는 사고(社告)를 보면 "전국 각 중요 직장에 게시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콩트·시·수필 응모를 바란다고 하면서, 작품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직장 '푸로필'(200자 원고지 5매 이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⁴⁷⁾ 이후 금융조합연합회 직원편,⁴⁸⁾ 산업은행 직원편⁴⁹⁾ 등의 「직장 문예란」을 보면, 콩트·시·수필·엽편소설 등의 작품이 실리는데, 장르 상이나 내용 상으로 보아 1952년 9월부터 모집했던 『희망』의 '독자 문예란(「문예싸롱 -독자 페자」, 「독자 문단」, 「독자 시」, 「독자 문예」 등)과 별반 차이가 없다. 사실 『희망』은 초창기부터 '독자 문예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⁵⁰⁾ 그러나 이와 같은 '독자 문예란'의 기획과 관

사, 1955.2, 191쪽.

47) 「사고(社告)」, 『희망』, 희망사, 1955.7, 165쪽.

48) 「직장 문예 리레이-금연(金聯)편」, 『희망』, 희망사, 1955.2, 162쪽.

49) 「직장 문예 리레이-산업은행편」, 『희망』, 희망사, 1955.8, 134쪽.

50) 임은희, 『『희망』 문예란에 나타난 '희망'의 표상 구축 방식과 문화정치』, 『대중서사학회 2017년 봄 학술대회 자료집』, 2017.5.27, 87-91쪽.

리는 잡지 운영의 전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다만 『희망』에서 특이한 점은 ‘직장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 문예란’을 기획하고 그것을 특화된 코너처럼 다루었다는 것이다. 내용과 형식상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이 기획이 가능했던 이유는 ‘직장인’이란 범주가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담보하고 있었고, 그런 ‘직장인’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희망』의 의도였기 때문이다.

3-2. 장기근속(長期勤續)의 서사와 ‘노동하는 인간’

직장인 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간희망』의 연속물 「5분간 인터뷰」(1956.4.13(제16호)~1957.3.15(제64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간희망』에서 인물을 다룬 기사류는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각주 30) 참조. 그 기사들에서는 주로 사회 저명인사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정치인·행정 관료들이 가장 많고 그외 학자·문화 예술가·언론 방송인·군인·공무원·배우/성우/아나운서 등이 등장한다. 이색적으로 「뉴 웨이스 의정 일년생」처럼 초선 국회의원으로 대상자를 한정한다든가, 「아름다운 초상」/ 「아내의 초상」처럼 ‘아내/가정부인’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지만, 직장인/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5분간 인터뷰」가 거의 유일하다. 이 글에서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당대 유명인사를 다루는 인터뷰기사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과제로 넘기고, 대중으로서의 개인, 일상적인 개인에 초점을 맞춘 「5분간 인터뷰」를 대상으로 1950년대의 개인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54~1955년 월간 『희망』은 「다년 근속자 대표창(大表彰)」(3회 연재), 「교통부 35년 근속자 지상좌담회」 등을 게재하는데, 이런 기사유형이 『주간희망』에서 「5분간 인터뷰」라는 고정란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다년 근속자 대표창』은 3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그야말로 “한 직장에 반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표창소식을 원고지 2~3장 정도의 분량으로 기사화하고, 해당 인물 사진을 2/3쪽 정도의 크기로 싣고 있는 화보형 기사다.⁵¹⁾ 『교통부 35년 근속자 지상좌담회』는 교통부에서 철도 56주년을 맞아 ‘교통부 근속 35년’의 공로자를 47명이나 표창했는데, 그 중 사무국 직원 최중하, 철도 기사(技士) 임몽택, 보일러 기사(技士) 김용득, 철도국 김완석 등 4명과 좌담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여기서는 각자 살아온 내력과 근무에 대한 회고담이 주요 내용이며 “35년이란 세월을 일수(日數)로 계산하면 무려 만 여일이란 오랜 세월을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속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이 나라에 바친 공로가 적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⁵²⁾는 기자의 해설처럼 ‘성실’, ‘헌신’, ‘애국’ 등이 핵심어로 부각된다.

이와 같은 직장 근속 기사의 서술양식을 이어 받은 고정기획코너가 『5분간 인터뷰』이다. 이 연재물은 제목 그대로 짧은 인터뷰 기사인데 사진과 간단한 약력을 통해 인물을 소개하고, 대담자에게 언제부터 그 일을 해왔는지, 일하는 동안 기뻐던 일, 슬펐던 일, 잊혀지지 않는 일, 앞으로의 희망 등을 묻고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간희망』 119호(총 135호)를 대상으로 『5분간 인터뷰』 연재기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51) 『한 직장에 반평생을 바친 사람들-다년근속자지상대표창(多年勤續者誌上大表彰)』, 『희망』, 희망사, 1954.11, 2-5쪽; 『다년근속자지상대표창(2)-한 직장에 반평생을 바친 사람들』, 『희망』, 희망사, 1955.1, 13-15쪽; 『장기근속자 지상표창』, 『희망』, 희망사, 1955.3, 14쪽.

52) 『교통부 35년 근속자 지상좌담회』, 『희망』, 희망사, 1955.12, 86쪽.

회차	대답자	나이	직업	근속기간	비고
1	최봉재(남)	53	우편집배인	34년 2개월	수입: 월 6,006환 50전, 취사미(일당 56환), 근무수당(1,600환)
2	곽윤범(남)	60	경전(京電)사무부장	36년 7개월	'친절과 주의를 필수로 강조
3	정기준(남)	71	교통부 수위장	40년	
4	권영준(남)	54	마포 형무소장	34년	'왜정시대 형무소'도 회고
5	장세옥(여)	60	국민학교 교사	40년	'담임교사 직분지키겠다 강조
6	서병관(남)	53	세탁업	36년	일평균 50벌, 총 65만벌 세탁
7	용재식(남)	70	인쇄공	50년 이상	앞으로 소원은 통일
8	김진갑(남)	57	공예가(자개)	41년	시문화상 수상 이력
9	송동섭(남)	50	복덕방		돈얻으려는 이들때문에 괴로움
10	양성중(남)	63	원예가	40년 이상	꽃=자식이라는 애착
11	이정희(여)	34	미용사	15~6년	책임감 강조
12	김채운(여)	43	조산원	20년	월평균 7, 8건, 한 번에 8천환
13	한일운(여)		기생	4년째	일평균 2, 30명 손님 상대
14	김경환(남)		재단사	36,7년	월평균 100벌, 총 4만벌 재단
15	이득재(남)	36	중앙소방서 소방감	16년	맡은 직분을 천직으로 생각
16	박수규(남)	45	장의사업	20년 이상	월평균 60건, 협정가 4,500환
17	주종벽(남)		교통순경		아침7시-밤12시까지 근무
18	한사로메(여)		반도호텔 여사무원		이승만과 인연으로 시작, 외화획득에 전력을 다한다는 자부심
19	이광명화(여)	35	무당	7년(추정)	1인 300환, 일 20명 정도 드니들
20	이정희(여)		전화교환감독	8년 이상	월3천환 수입, 직장자랑
21	박종호(남)	52	금은세공	32년	금은방 주인-금은계의 왕자
22	이화진(남)	72	박물관 감독	40여 년	우리나라문화재보호의 공로자
23	한달선(여)	72	상궁	59년 이상	옛 왕실 법도의 존엄성 보존
24	마효준(남)		검차(檢車) 주임	25년	지식보다 체험 습득 강조
25	차귀순(여)		안마사(맹인)	20년	넉넉한 형편, 남 보기에는 안타까움
26	김영순(남)	36	악단장(치과의사)	14년(악사)	미군부대 대상 공연
27	홍능성(남)	38	애견가		개에게 가족보다 더 지극정성 쏟음
28	한경행(남)	54	택시 운전수		정신노동자이면서 기술자, 수입면에서는 특정 '뿌르조야(불규칙)
29	장영자(여)	34	수예가	26년	우리나라 여성기술이라는 포부
30	고정식(남)	70	골동품상	57년(추정)	'왜놈'에게 국보강탈을 분개
31	김영섭(남)		대서업	25년	대서소를 '노인 사교장'으로 표현
32	강홍택(남)	46	수소화물(手小貨物)운반	26년	수입: 월 평균 4, 5만환, 직장권태는 전혀 모름.
33	박봉화(남)	59	화장장 화부감독	39년	일 평균 20명, 총 50만명 화장. 공무원 신분, 3천환 월급
34	김진호(남)	55	석공업	40년	대한석재회사 사장

35	박영자(여)	22	다방레지	4년 6개월	수입: 월 3만원, 아침 5시부터 통행금지 때까지 중노동
36	이윤규(남)	46	전차신호수	26년	하루 18시간 근무
37	박권희(남)	33	재일청년운동가		민족과 조국사랑 열기가 넘침
38	신완균(남)	52	양화 수리업		눈물겨운 과거 토로
39	신봉숙(여)	49	여경 경무주임		대한민국에 헌신봉사
40	윤목(남)	57	한의사	50여 년	조부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았음. 장남에게 계승하고자
41	윤영희(여)	18	여사무원(천우사)	2개월 미만	6.25사변 이후 고아가 되어 생계를 위해 취직. 월 만오천환.
42	오덕환(남)	52	도장업	30여 년	무명 도장방-하루 작업 서너 건
43	윤철구(남)	45	선전미술가	30여 년	출판물 광고(포스터) 작업, 길보기에만 호화로운 뿐.
44	이은순(여)	22	데파아트걸	4년(추정)	하루 13시간 중노동, 수입 월 이만환. 9식구 부양.
45	공운택(남)	47	제과업	28년	경무대에도 납품할 정도의 성공. 수입은 보통 10만원대 이상
46	조의행(남)	37	사조가(飼鳥家)		할아버지를 따라 새 돌보다 직업으로
47	박영달(남)	51	동물원 사육과원	30년	한국 동물원 대표격으로 칭송
48	정두성(남)	68	식물원 감독	30년 이상	아침4시-밤11시까지 온실 곁에 근무

『5분간 인터뷰』는 1956년 4월 13일(제16호)부터 1957년 3월 15일(제64호)까지 총 48회(48명의 대답자)가 연재되었고, 이중 여성인물은 14명(교사, 미용사, 조산사, 기생, 사무원, 무녀(巫女), 전화교환수, 상궁, 안마사, 수예가, 다방레지, 경찰, 데파트걸)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장기근속 기사와는 달리 근속연한(勤續年限)보다는 일을 어떻게 해왔냐는 일종의 노동태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답자들 중에는 직장인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원예가·애견가·사조가(飼鳥家)·공예가·수예가·사회운동가 등도 있고, 소위 천대 직종이나 소멸 직종이라 할 무당·안마사·다방 레지·기생·상궁 등도 있다. 또 대답자의 노동 연한이 5년 미만(심지어는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다수는 장기근속에 해당하는 사례이지만, 『5분간 인터뷰』

는 특히 하층민의 직업/노동이라 할 만한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면서 직업윤리/노동윤리라 할 만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대담자들에게는 고된 노동을 묵묵히 감내하는 ‘인내’, ‘성실’, ‘헌신’의 태도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도보로 평균 50~60리를 걷느라, 한 달에 평균 한 켤레의 신발이 필요하다는 우편집배인 최봉재씨는 34년 2개월 동안 단 하루의 결근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변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요즘의 “혈기방장한 표정으로 진실강건치 못한 젊은이들의 태도”와 대조되어서 더욱더 부각된다. 나아가 매일 “신성한 자기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체신대(遞信袋)를 걸머지고 문을 나서는 그의 모습은 숨김이 없고 진실한 우리들의 벗임에 한 없이 미더웠다.”⁵³⁾고 극찬에 가까운 해설을 덧붙인다.

또 교사 생활이 40년차인 여교사는 자신의 아들은 이미 교감이 되었지만, 그녀 자신은 “교장이나 교감이라는 자리보다 확실히 담임교사라는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다짐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그녀는 열아홉 살때부터 교사생활을 했는데, 특히 이처럼 어릴 때부터 시작한 일을 ‘천직(天職)’으로 여기는 대담자의 모습은 『5분간 인터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몇몇 기사만 살펴보아도, 18세 때부터 50년 넘게 “다만 맡은 일이 인쇄니까” 계속 해왔다는 70살의 인쇄공,⁵⁵⁾ 14살 때 배운 재단 기술로 36,7년을 하다 보니 싫증도 나지만 “이제는 이 일을 버릴 수도 없”다는 김경환씨,⁵⁶⁾ 13살때부터 골동품을 찾아 장안 냥마집을 내 집 다니듯이 다니다 나이 칠십에 이르렀다는 고정식씨,⁵⁷⁾ 6살때부터 할아버지와 부친 밑에서 한약을 매만지다보니 반세기

53) 『5분간 인터뷰-최봉재씨』, 『주간희망』 제16호, 1956.4.13, 9쪽.

54) 『5분간 인터뷰-장세옥씨』, 『주간희망』 제20호, 1956.11.13, 13쪽.

55) 『5분간 인터뷰-용지식씨』, 『주간희망』 제23호, 1956.6.1, 17쪽.

56) 『5분간 인터뷰-김경환씨』, 『주간희망』 제30호, 1956.7.20, 23쪽.

동안 동양의약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한의사,⁵⁸⁾ 나이 열여섯살에 일본인 밑에서 견습 제과공으로 일을 배우다 지금은 경무대 납품까지 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공운택씨⁵⁹⁾ 등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장기근속(長期勤續)’의 서사가 『5분간 인터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인터뷰 대상자들의 나이는 대체로 40대 이상(10~20대로 추정되는 사람은 네 명 내외)이다. 이는 최소 10~20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긴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청년’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주체로 등장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이채로운 일이다.⁶⁰⁾ 기존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초반 『희망』은 한국전쟁의 승리와 재건의 주체로 청년을 호명했고, 전후 복구와 생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청년은 노동자로서 다시 호출되었다.⁶¹⁾ 나아가 1960년대 대중문화예술 영화·드라마·대중가요 등에서는 ‘생산, 노동, 개혁’하는 청년의 형상이 더 구체적으로 부각된다.⁶²⁾ 청년 주체가 담론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0~1920년대에 태어나 1960년대에 40~50대에 도달한 중장년세대는 친일 협력의 과오와 이념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방 이후, 재건과 부흥이라는 ‘신(新)’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에 놓인 구세대인 것이다. 그래서 완고함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 구습에 젖어 현실에서는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은 대중서사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57) 『5분간 인터뷰-고정식씨』, 『주간희망』 제46호, 1956.11.9, 45쪽.

58) 『5분간 인터뷰-윤목씨』, 『주간희망』 제56호, 1957.1.18, 27쪽.

59) 『5분간 인터뷰-공운택씨』, 『주간희망』 제61호, 1957.2.22, 29쪽.

60) 이 지적은 2017년 봄, 대중서사 학술대회에서, 필자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토론자: 전지니) 내용이었음을 밝힌다. 그 문제제기에 답하면서, 이 글은 좀더 의미있는 고찰을 할 수 있었다.

61)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어문론총』 68권, 2016, 376-377쪽.

62) 이영미,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 인물과사상사, 2017, 108-11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간 인터뷰』가 40~50대의 직업인들을 주로 다루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애초부터 다양한 직업인 소개나 이웃 탐방 등의 임의적인 시도가 아니라, 특정한 윤리와 가치를 주장하기 위한 의도적 기획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것은 인내·성실·헌신·천직·사명감 등의 핵심어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직업윤리/노동윤리이다. 청년 주체는 새시대를 이끌어갈 희망과 재건의 이미지를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일종의 금욕주의·소명적인 태도를 띠는 직업윤리/노동윤리를 드러내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그것은 10~20년간의 장기근속이라는 오랜 시간/경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고, 이를 감당한 것이 바로 서민/하층민 직업을 가진 40~50대였던 것이다.

더구나 『희망』에서는 그들의 장기근속의 결과, 즉 노동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술을 하지 않는다. 개인의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노동 그 자체에 대한 긍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5분간 인터뷰』를 통해 등장한 대답자들은 자신의 일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비하되는 천직(賤職)이라 할지라도, 혹은 보잘 것없는 댕가를 받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심지어는 그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노동태도를 보이거나 순응/인정의 자세를 취한다. 전체 대답자 48명 중 13회, 19회, 38회에 등장한 단지 세 명의 대답자만이 자신의 일(기생, 무녀, 구두 수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낼 뿐⁶³⁾ 대다수가 자신의 직업/일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5분 인터뷰』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상투어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63) 다소 예외적으로 6회차의 '서병관'은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자식들이 아버지의 직업(세탁업)을 부끄러워한다고 전한다.

(가) “하고 싶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동리에서 자라나다보니 이런 직업을 갖게 되어 이렇게 문혀 살고 있습니다.”

남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직업을 가졌건만 이제 주름살이 완연한 그의 노안에서는 값싼 막걸리의 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법 점잖은 웃음까지가 새어나와 이해가 곤란한 녀두리를 곧잘 늘어놓는다.

(박봉학, 화장장 회부감독)⁶⁴⁾

(나) “뭐 하고 싶은 일이라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포부를 지니고 닥쳐본 것이 오늘날까지 이 모양이군요.” 이제 꺼칠어질 때로 꺼칠어진 손매디로 주름살이 확연한 얼굴을 매만지며 그의 과거를 슬회하는 말치고는 너무나 덤덤하다.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아도 열아흔 식구의 밥벌이가 된다고. “비천한 직업에서 오는 어설픈 표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만족에 넘치는 웃음을 짓는다”

(이윤규, 전차 신호수)⁶⁵⁾

(다) “사람이 어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까? 그저 배운 것이 이것뿐이라 싫증이 나지만 밥을 먹게 되니 그럭저럭 계속해 내려온 것이죠.” 30여 년간 온갖 단련을 다 받아가며 밥을 먹게 되니 싫증이 나나마 계속해 내려왔다는 그는 꾸준한 인내심으로 오늘날 기교를 겸비한 금은방주인으로 자기경영에 이르렀고 거의 반 칸이나 되는 금은방은 간판을 걸고 남녀점원까지 거느리게 된 금은계의 왕자가 된 것 같다. (박종호, 금은세공사)⁶⁶⁾

(라) “뭐 하고 싶은 일이라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왜정 밑에서 공부는 하기 싫고 중학을 중퇴하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군요.” 자기의 직업을 스스로 천대한다거나 비웃는 말투가 아니라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체념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라는 듯 그의 말에서는 조작이라든가 항변 같은 것은 도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강홍택, 수소화물(手小荷物)운반업)⁶⁷⁾

(강조-인용자)

위 인용문에서처럼 대담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뭐 하고 싶은 일이라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이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이런 대담자의 태

64) 『5분간 인터뷰-박봉학씨』, 『주간희망』 제49호, 1956.11.30, 40쪽.

65) 『5분간 인터뷰-이윤규씨』, 『주간희망』 제52호, 1956.12.21, 25쪽.

66) 『5분간 인터뷰-박종호씨』, 『주간희망』 제37호, 1956.9.7, 29쪽.

67) 『5분간 인터뷰-강홍택, 수소화물(手小荷物)운반업』, 『주간희망』 제48호, 1956.11.23, 24쪽.

도가 자기비하나 자조적인 변명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하는 끝맺는 방식은 『5분간 인터뷰』 48회 전체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어서, 혹 기자가 매회 비슷한 양식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무의식중에 옮겨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투어구는 단지 표현의 차원을 넘어서 『5분간 인터뷰』 나아가 『희망』의 개인표상의 새로운 특징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특성으로서의 체념과 절제를 포함한 ‘소명적 직업관’에 해당하는 노동윤리이다. 이는 서구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내세우는 주체주의적·합리주의적 인격체, 금욕적인 직업윤리, 반쾌락주의적인 노동윤리⁶⁸⁾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앞서 2장에서 절박한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당대의 현실적 배경을 거론했는데, 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분간 인터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 강점-해방-전쟁을 거쳐 오면서 가정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선택여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고, 현재도 다른 대안이 없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할지라도, 특이한 것은 이런 대답자들을 서술하는 『희망』의 태도다. 『희망』은 일종의 생존서사로 여겨질 수도 있는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고정기획코너로 배치해두고, 48회나 연재할 정도로 비중있게 다루었다. 또 대답자들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기는커녕 “만족한 웃음”, “점잖은 웃음”, “뽕뽕하다”는 표현처럼 마치 인생사를 달관한 초연한 태도임을 암시한다. 심지어 종교적인 구도자의 이미지까지 연상케 할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5분간 인터뷰』의 전체 대답자 48명 중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기는

68)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역, 길, 2010, 333-410쪽 참조.

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직업의 주인공”⁶⁹⁾도 있고, “외화벌이”를 하는 애국적인 가치가 있는 직업⁷⁰⁾도 간혹 등장한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 대부분의 경우는 별다른 가치부여를 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자기생존과 가정의 생계를 위한 ‘밥벌이’로서의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긍정/인정이다.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어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식의 상투어구는 노동자의 자기겸손이라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가치판단 중지를 드러내는 방식에 더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가진, 자율적인 개인 주체는 정립될 수가 없다. 자본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시민계층적 개인들은 주관적인 동기부여에 입각해 경제적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삶과 행위를 영위하며 그것에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인간들이다.⁷¹⁾

『희망』은 그와 같은 자본주의적 개인-경제적 인간 대신 국가 질서/공공 규율을 내면화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주체를 호명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규율되는 주체, 관리되는 주체로서의 개인-노동하는 인간의 원형이 형성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잡지 『희망』이 1950년대 개인을 호명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들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은 자본주의/산업사회의 경제발전이 친화적인 특정 가치인 검약, 성실, 인내/극기, 헌신, 사명감 등을 내면화했으며, 이들은 향후 60~70년대의 ‘산업역군’으로 등장한다.

69) 『5분간 인터뷰 박수규씨』, 『주간희망』 제32호, 1956.8.3, 23쪽. (장의사); 그 외 우편 집배인, 화물배달부, 수위, 형무소 직원, 조산사, 소방관 등이 사회적 의미가 있는 직업으로 서술되고 있다.

70) 반도 호텔 여사무원, 미군 부대 악사 등이 그러하고, 외화벌이는 아니지만 국보를 지키는 박물관 공무원, 한국의 대표 동물원을 책임지는 사육사 등도 애국적인 가치가 있는 직업으로 서술하고 있다.

71)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역, 길, 2010, 613쪽.

4. 나가며

이 글은 대중잡지 『희망』에 나타난 인물 기사, 인터뷰, 칼럼, 처세술 기사를 대상으로 1950년대의 개인표상을 분석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의 개인담론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났다. 개인담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성공담/고난 극복담의 비중이 『희망』에서는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고, 대신 새롭게 부각되고 양적으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직장인 담론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5분간 인터뷰」라는 기획연재 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체 기사에서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은 서민층의 직업/노동이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천대받는 직업/노동이라 할 만한 직종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또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직업윤리/노동윤리를 강조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가치는 인내·성실·헌신·천직·사명감 등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동 그 자체에 대한 긍정이 부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이 잡지 『희망』이 1950년대 개인을 호명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다양한 직업인의 서사 속에서 비주체적이고 비자발적인 ‘노동하는 인간’의 원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전후 근대화 과정과 관련해서 대중매체에서 직업인/노동자를 배치하고, 형상화하는 방식의 기원을 고찰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한국에서 ‘노동’이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은 개념 중 하나였다. ‘노동’ 개념사 연구에 따르면,⁷²⁾ 근대적 의미에서 ‘labor’

72) ‘노동’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노동-한국개념사총서 9』(김경일, 소화, 2014, 32-34쪽; 236-270쪽)에서 요약·정리했다.

나 'work'의 번역어로 형성된 '노동' 개념은 1880년대 일본에서 채용되어 이후 조선과 중국으로 보급되었다. 이후 역사적 국면에서 근면주의·이상주의·인격주의적인 의미로 변주되며 구체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근대 노동 개념은 근면주의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며, 특히 노동의 효율과 생산성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국가의 부나 경제성장 혹은 체제의 건설·유지를 지상 과제로 설정해온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다.⁷³⁾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보자면, 『희망』에 나타난 개인표상은 전통적인 노동 개념이 근대적인 의미로 규정되는 종결과정을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동안의 식민지 자본주의 등을 거치며 복합적이고 징후적인 편차가 있음도 사실이지만, 『희망』의 개인표상은 보다 생계수단·법벌이로서의 '일'을 하는 인간으로부터 노동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지향적인 '노동하는 인간'의 원형이 형성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노동 가치는 금욕적인 직업윤리와 반쾌락주의적인 노동윤리가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직업윤리와 노동윤리와 더불어 서구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근본을 이루는 주체주의적·합리주의적 인격체의 형성과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생활방식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의 '개인'은 비주체성과 비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후 국가주도의 산업화시대에 한층 편향되어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개인들을 호명하게 되는 역사적 맥락으로 이어진다.

73) 김경일, 『노동-한국개념사총서 9』, 소화, 2014, 258-259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월간 『희망』 1~88호

『주간희망』 1~135호

2. 논문과 단행본

김경일, 『노동-한국개념사총서 9』, 소화, 2014.

김동춘, 『근대의 그늘』, 당대, 2000.

김성환, 「1970년대 『선데이서울』과 대중서사」, 『어문논집』 64집, 2015, 239-273쪽.

김연숙, 「식민지 조선인 자본가의 표상과 민족담론」, 『어문연구』 38권 3호, 2010, 277-300쪽.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김한식, 「『학원』의 인물 이야기와 전후 청소년 교양」, 『겨레어문학』 49권, 2012, 147-172쪽.

김혜인, 「자본의 세기, 기업가적 자아와 자서전」, 『사이間SAI』 18권, 국제한국문학 문화학회, 2015, 151-188쪽.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역, 길, 2010.

신혜수, 「1950년대 여성관련 잡지 목록」, 『근대서지』 제7호, 2013, 654-682쪽.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제13호, 2016, 158-189쪽.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 신문사, 2005.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 2010, 397-454쪽.

이영미,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 인물과사상사, 2017.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 연구」, 『어문논총』 66권, 2015, 295-321쪽.

이한구, 『한국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1999.

임은희, 「『희망』 문예란에 나타난 ‘희망’의 표상 구축 방식과 문화정치」, 『대중서사학회 2017년 봄 학술대회 자료집』, 2017.5.27, 86-98쪽.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어문논총』 68권, 2016, 369-400쪽.

_____, 「『희망』 소재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70집, 2016, 103-130쪽.

- 조윤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47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15-136쪽.
- 홍명수, 「재벌의 의의 및 특성」, 『경쟁법연구』 9, 2003, 149-205쪽.

Abstract

Narrative of Individuals in *Huimang(Hope)*, a Magazine in the 1950s

Kim, Yeon-Sook(Kyunghee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opular magazine *Huimang(Hope)* to analyze its articles on figures, interviews, columns, and interpersonal skills so as to explore the narratives of individuals in the 1950s.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reveal the specific outline at the point where the then popular narratives and state narratives joined together.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the articles on figures decreased the general success stories and the stories of overcoming difficulties significantly. Second, the narratives of individuals focused on the stories of company employees which were newly emphasized and accounted for most of the articles. Thir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story of company employees, 「5-Minute Interview」 serial articles revealed the following thing: Overall, diverse jobs appeared, but most of them were commoners' jobs/labor, and they included even despised jobs/labor. Interviewees explained their lives and emphasized ethics of job/ethics of labor. Their common key values included patience, dedication, vocation and sense of mission. Thus, regardless of individuals' success, labor itself was highlighted as positive. Such an attitude was the internalization of a kind of ascetic resignation and abstinence, and had the same context as the Western view of vocational job.

In that new way, the magazine *Huimang(Hope)* defined individuals in the 1950s. In the narratives of diverse professional workers, the prototype of the non-subjective and involuntary working man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before and after Korean War, the popular magazine thus explored the origin of deploying and defining professional workers/laborers. Furthermore, individuals as laboring humans continued to embrace the economic development-friendly values in the capitalist/industrial society, such as frugality, sincerity, patience/self-determination, dedication, and sense of duty, and they were praised as industrial warriors in the 1960s to 1970s.

(Key Words: *Huimang(Hope)*, modern individual, company employee, ethics of job, ethics of labor, laboring human, regulated subject, managed subject)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9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4일